

축사

동서양 춤의 정신

박 용 구

원로무용평론가

지금 세상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위기설로 들끓고 있는데, 앞으로 지구가 살아날 길은 지구처럼 원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세기까지의 서양의 과학문명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소멸시키는 그런 에너지로서 석탄이 발굴되면서 증기기관의 문명이 19세기에 생겼고 그 다음 석유를 써서 전기와 내연기관(內燃機關)에 의해서 지구는 환경오염이라든가 핵개발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천년의 살길은 주제와 같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대립된 것이 아니라 동서가 공통과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지구처럼 “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둥근 지구가 한바퀴 돌아서 새천년에는 문명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근본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18세기 뉴턴론이 “지구 인력설”로 수직적인 방정식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21세기를 여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E=mc^2$,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과 공간이 지구다 라는 수평적인 방정식을 제시했고, 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이론은 바로 노자(老子)가 없음(無)에서 있음(有)을 풀무의 에너지와 비유한 것과 비슷해서 새로운 21세기, 새천년의 세상을 열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기현상은 모두 고대에는 자연섭리를 헤아리는 법을 지혜로 알았고, 유럽의 근대문명이라는 것은 수량으로 헤아리는 법을 지식의 지표로 알았던 것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20세기 공해의 원흉이었던 석유는 곧 끝날 것이고 이것 대신에 바람과 태양과 공기, 수소와 산소의 화학작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석유로 이루어졌던 문명에 대치한다는 그런 이야긴데, 이것은 바람으로 풍력발전을 하게 되고, 태양열을 받아서 벌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솔라(Solar)자동차가 보편화되고, 말하자면 내연기관 같은 것이 태양열로 대치되고 수소파이프를 각 가정이나 공장까지 설치해서 공기 속에 있는 산소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구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화에 하느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풍신(바람의 신)과 우신(비의 신)과 퇴신(우뢰의 신)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바람과 태양과 공기로 앞으로의 21세기에 문명사회를 이룬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태초신화에 풍신과 우신과 퇴신을 보냈다는 얘기와도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춤도 예외일수는 없는데 난 여기서 춤과 무용을 지금까지도 구별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어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춤이라는 말과 무용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쓰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춤이라는 것은 아주 뿌리가 되는, 몸짓과 리듬으로 생겨난 태초의 것을 “춤”이라 하고, 그것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예술화하는 것을 “무용”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춤은 모든 예술의 근원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같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 인간이 공포의 대상이던 초자연적 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응책을 짜냈다고 나는 보는데, 그 하나는 겁을 주는 것, 말하자면 ‘어비다’라는 겁을 주는 주술적인 것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빌자고 하는 ‘빌자’라는 주술적인 것, 바로 이 ‘어비’와 ‘빌자’가 모든 예술의 근원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동양과 서양이 똑같은 생각에서 그 ‘어비’와 ‘빌자’로 모든 예술이 시작됐다고 보고, 고대 회람에 스파르타와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들, 공자가 나고 노자가 났던 2500년 전후 춘추전국시대에 도시국

가적인 여덟 나라들,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인도의 모헨자로라는 것도 고도의 도시국가의 하나였다는 것이고, 보다 이런 시기에 춤이 갖는 정신과 형태는 東과 西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디오니소스 축제와 우리 고조선의 영고(迎鼓)와 무천(舞天)의 경우처럼 결국 춤에 있어서도 東과 西를 갈라놓는 현상은 유럽에서 유대교에서 비롯되는 여호와 사상 즉, 유일신(唯一神)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정신문화의 구심점으로 굳어지면서 중세기에 이르러서 음악예배와 병행하던 무용예배를 성당에서 추방함으로써 각기 제 갈 길을 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냥 주술적인 '어비'와 '빌자'에서 비롯된 춤이 다신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엌이나 뒷간까지도 신이 있을 정도로 '빌자'는 생각들이 춤에 배어 있었지만, 중세기에 서양에서는 573년에 렛셀 종교회의에서 무용예배를 성당에서 추방함으로써 그들의 춤은 종교성을 잃고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고 르네상스를 맞아서 극장이라는 닫혀진 공간이 생기자 독자적인 무용예술인 발레가 발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술적인 작품이 태어나게 되고 극장공간 속으로 무용이 들어오면서 작가의 이름 아래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는데 비해서 동양에 있어서는 궁정공간이라던가 마당놀이 같은 열려진 공간에서 무용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임금이 아니면 음악이나 무용을 만들 수 없다는(非天子면 不作樂) 규범에 따라서 무명성(無名性)이 특성처럼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춘앵무」 같은 춤도 어떤 임금이 만들었다는 걸로 되어있지 진짜 작가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모두 임금이 만든 것으로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동양에서는 열린공간에서 무명성의 춤이라는 것이 있었고, 서양에선 닫힌공간에서 기명성의 무용이라는 것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항공로의 발달로 1년에 4억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 20세기에 와서 그런 대비는 소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 20세기가 소비적인 문명으로 위기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해결은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동양이다 서양이다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과제로 지구촌의 인간으로 생존이 달린 문제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핵문제라던가 공해문제,

빈부의 격차, 인종차별, 종교의분쟁, 어느 것 하나가 같은 동양이니까 어떻고 서양이니까 어떻고가 아니라 공통된 문제로 대처해야 될 것 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과제가 된 동양과 서양의 춤의 정신도 이러한 과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자세로 새천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들의 동과 서의 춤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구는 둥글다’는 의미에서 처음은 같았으면서 갈라졌다가 다시 지금 만나지는, 그러니까 지구가 한바퀴 돌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핵전쟁과 같은 어리석은 짓으로 멸망하지 않는 한,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무용예술도 이러한 문제들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동양과 서양의 앞으로의 춤의 정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